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테라와다 상좌부 단기출가와 미얀마 봉사활동



테라와다 상좌부 6일간 단기출가 수행 (양곤 까바야 지역 탁발의식 체험)

국제불교지도자협회(회장 목탁)는 3월 1일부터 3월 6일까지 미얀마 양곤을 방문해 미얀마 승가대학에서 테라와다 상좌부 불교 단기출가 및 수행과 국제불교지도자협회 미얀마 봉사활동 등을 진행했다.

이번 국제불교지도자협회가 진행한 테라와다 상좌부 단기출가는 사상최초로 세계불교 지도자 500인 선정을 위한 남방불교 단기수행과 비구 구족제 의식 체험으로 세계불교의 화합과 변화를 주도하고 미얀마에 대한 지원과 봉사활동의 확대를 위한 행사로 마련됐다.

수행단에는 종단과 범남 속담을 불문한 각 종단 원로 및 중진 스님 27명과 봉사활동 회원 제까지 5명이 참여했다.

3월 1일 양곤 민달라드 국제공원에 도착한 수행단은 2일 미얀마 양곤의 사사나 대학(세계불교승가대학)에서 단기 출가의식 및 상좌부 불교 사미계 및 구족계를 진행했다.

미얀마 승가대학 개교 후 최초로

테라와다 상좌부 단기출가 및 교육

아티사 스님을 학장으로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원 정규과정을 운영 중인 사사나 대학에서는 테라와다 불교 수행과 함께 팔리어와 영어 강좌가 진행된다.

국비로 기숙사 제공 등 전액무료로 진행되는 사사나 대학은 음행, 도둑질, 살생, 거짓말 등을 철저히 금지시한다. 특히 미얀마에서 공식 인정된 승가대학으로는 양곤과 만달레이 2곳 밖에 없는 곳이다.



사사나 양곤 승가대학

수행단은 이날 사사나 대학에서 사미계·구족제 등 227계를 수지하는 출가의식에 참여했으며 의식을 시작으로 4박 5일간 일정에 돌입했다. 수행단은 (자애경) 봉독을 시작으로 가사와 발우를 신도들에게 보시 받았으며 미얀마 스님 70여 명이 증법사로 나섰다. 특히 이날 출가의식에는 우산신 미

얀마 종교성 장관과 미얀마 종교성 관계자 등 불자 100여 명이 참석해 한국 스님들의 단기출가 및 수행을 축하했다. 출가한 수행단 스님들은 곧이어 위빠사나 강의를 듣고 마하시 위빠사나 수행을 실수했다. 또 미얀마 스님 400여 명과 함께 합동예불을 진행했다.

민서원 사사나 대학 사무차장은 “승가대학 개교 후 한국스님들의 단체 테라와다 상좌부 불교에 대한 출가 및 교육은 최초”라며 양국 불교 지도자들의 교류가 확대되기를 기원했다.

수행단은 3월 3일에는 우산신 미얀마 종교성 장관을 예방해 한국과 미얀마 불교교류를 논의했다.

회장 목탁 스님과 우산신 장관의 면담은 미얀마 국영TV와 미얀마 주요일간지에 자세히 보도될 정도로 화제가 됐다. 우산신 장관은 장관 임명 후 2주 밖에 되지 않아 업무과외에 비뺌에도 직접 행정수도 네도에서 양곤으로 와 한국스님들의 단기출가 수행을 직접 챙길 정도로 큰 관심을 보였다. 우산신 장관의 관심은 직접 수행원들과 수행단의 일정 및 동선을 확인하고 미비점을 시정지시할 정도였다.

이날 면담자리에는 미얀마 정부 부장관과 차관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한국에서는 목탁 스님과 함께 상영된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사무국장이 배석했다.

종교성 우산신 장관 면담

‘양국 교류 활성화와 적극지원 약속’

우산신 장관은 “한국의 스님들이 테라와다 불교수행에 참여한 것에 큰 감명을 받았으며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다. 우산신 장관은 또 “국제불교지도자협회와 현대불교신문이 공동캠페인으로 진행하는 우물파기와 학교지원 사업 등을 잘 알고 있다”며 “한국 불자들의 봉사활동에 감사하며 향후 차량지원, 통역지원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우산신 종교성 장관은 국제불교지도자협회가 추진 중인 종합기술학교 건립에 대한 행정지원 등도 약속했다.

목탁 스님은 “한국스님들의 사사나 승가대학 수행에 직접 관심 가져줘 감사하다. 지속적인 교류에 노력하며 우물파기와 학



목탁스님과 우산신 종교성 장관 면담 (종교성 접견실)

교지원 등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며 종합기술학교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한 관심을 부탁했다.

수행단은 3월 5일 종교성 내 중정 접견실에서 미얀마 중정 닥터 우꾸마라 스님을 친견했다. 미얀마의 중정은 67명으로 구성된 연방승가회 원로회의에서 선출되며 원로회의 의장 겸 중정 직무를 종신토록 수행한다.

이날 한국 스님들로 구성된 수행단은 미얀마 중정 스님으로부터 부처님 진신사리를 받아 이운했다. 동참한 한국 스님들은 테라와다 수행에 대한 느낌을 밝히며 양국 불교교류가 더욱 활성화 되기를 기대했다. 닥터 우꾸마라 중정은 “부처님 말씀을 정확히 지켜나가는 것이 승가의 유일한 목표임을 항상 생각하고, 승가간 강한 연대를 유지하자”고 말했다.

중정 친견 이후에는 웨다공 파고다를 찾아 예불과 참선을 진행했다. 양곤에 위치한 웨다공 파고다는 2500년전 지어진 미얀마의 상징이다. 고타마시타라타 부처님 재세시 미얀마 상인들이 얻어온 부처님의 머리

닥터 우꾸마라 미얀마 중정스님 친견,

마정수기 및 웨다공 파고다 참배

카락을 현재 위치 언덕에 쌓은 것으로 최초의 불탑으로도 불리고 있다. 15세기 버고 왕조의 신소부 여왕을 시작으로 역대 왕들이 계속 금으로 탑을 증축해 현재 지상 98m에 이르는 모습이다. 웨다공 파고다 안에는 총 80여개의 건물과 66개의 작은

파고다가 있다. 2007년 민주화 시위의 출발점이 되기도 한 민주화 성지로도 의미가 깊다.

3월 6일에는 탁발과 함께 테라와다 남방불교 단기출가 환속의식을 진행한 수행단은 까바야 파고다에서 세계평화회담을 순례했다. 천국사 해정 스님은 마정수기 후 한국·미얀마 불교교류에 대한 공로로 미얀마 불교수호협회가 수여하는 훈장을 받기도 했다.

양곤 까바야 지역에서 진행된 탁발의식은 테라와다 상좌부 불교 전통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단기출가 한국스님들의 탁발은 종교성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으며 전날 탁발지역 주민들에게 사전 공지됐다. 3일과 6일 오전 9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승가대학 부학장 스님의 인솔 하에 진행됐다.

탁발의식에서는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셀 수 없는 수많은 주민들이 grids 준비한 밥, 국, 과자, 돈 등 행편에 맞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 공양을 올렸다. 주민들은 복을 지을 수 있는 탁발공양의 기회를 부여받아 너무나 감사하다고 기뻐했다. 미얀마 주민들은 지열로 달구진 길바닥에서 삼배의 예를 올리기도 했다.

주민 소미어 씨는 “한국 큰스님들께 공양을 올릴 복덕을 누리게 돼 너무나 감사하다”며 “비록 보잘 것 없는 음식이지만 정성껏 받으시어 큰 지혜 이루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광교영역부 이명경 부장 jab1522@hyunbul.com



미얀마 중정 닥터 우꾸마라 친견



까바야 지역 불자들의 정성어린 탁발공양

인터뷰

“한국과 미얀마 불교교류 디딤돌 될 것”

- 국제불교지도자협회 목탁 스님 -



목탁 스님은 “이번 미얀마 방문단으로 동참한 스님들은 각 종단의 원로 스님들과 중진스님들로 구성된 종단과 범남, 속남까지 불문하고 출가의 초발심으로 돌아갔다”며 “수행과정을 끝까지 함께하신 것은 한국불교의 힘을 보여준다고 동시에 후학들에게 무언의 가르침을 몸소 행으로 보여 주신 것이라 그 의의가 참으로 크다고 하겠다”고 말했다.

국제불교지도자협회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불교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고 세계불교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양정설 예정이다. 국제불교지도자협회는 미얀마 종교성 우산신 장관과 관리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단기수행 및 봉사활동이 잘 마무리 되었고 종교성 장관과의 특별 면담으로 향후 계획과 협조에 대해 추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목탁 스님은 “한국 스님들의 미얀마 승가대학에서의 단기수행은 한국불교 역사상 최초”라며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의 이해와 상호교류에 큰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목탁 스님은 “함께 진행된 미얀마문화원과 현대불교신문의 미얀마 지원 공동캠페인 또한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모금으로 계속되고 있는 국민층에 대한 우물파기지원과 학교지원 등의 결과도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현대불교신문사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1 우물파기 지원

이번 수행단 방문에서는 미얀마문화원과 현대불교신문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미얀마돕기 캠페인이 진행되기도 했다.

양곤 북쪽 90km 레그시 미양정 마을에서 진행된 우물파기 캠페인에서는 우물 2기가 마을 측에 기증됐다.

레그시 미양정 마을은 2000년도부터 기독교 관련 단체에서 저리 금융할부와

로만 사용한다. 음용수는 각 가정에서 구매 사용하고 있으며 발전기 운용 등 우물관리는 각 가정에서 행편에 따라 넌돈으로 공동운영 한다는 것이다.

우물 기증을 받은 꼬조우매 이장은 “한국불자들의 도움으로 가장 필요한 생활용수 문제가 해결돼 너무 감사하다. 물을 퍼올릴 때마다 그 감사함에 마음을 모아 합장한다”고 말했다.



미양정 국민층에 우물 2기 기증

식수지원을 조건으로 선교활동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 주민들은 이를 거부하고 불교를 지켜가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국민지역이다. 350여 가구가 1기의 우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에 모금된 기금으로 이번에 2기의 우물과 발전기를 기증한 것이다.

수량이 한정돼 있어 하루 1회 발전기를 통해 물을 퍼 올려 정해진 시간만 급수하고 있으며 물이 좋지 않아 생활용수

2 학교 지원

이밖에 양곤 북쪽 외곽 홀라임파야 지역 암마까15마을 학교와 레고 41마을 학교를 방문해 공동캠페인으로 모금된 정성금과 학용품, 구충제, 의류 등의 물품을 전달했다.

초등학교 850명이 있는 암마까 15마을 학교는 정성금으로 체육 및 전체 활동이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모금액 300만원으로 1차로 휴을 깔았으며 국민 아동 20 명을 추천받아 매달 장학금 형식으로 1년간 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420명이 다니는 레고 41마을 학교는 생활용수 부족으로 우물 1기 제작을 지원하고 구충제, 학용품을 전달했다. 특히 열악한 학교현장을 둘러본 한국 스님들은 논의를 거쳐 현장에서 미화 2,000달러를 모금해 국제불교지도자협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양곤 인근 암마까 15마을학교 학생들에게 학용품 및 1년 학비지원금 전달

미얀마 돕기 공동캠페인 정성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 문 의 : 현대불교신문 02)2004-8214 / 미얀마문화원 02)733-5665
- 후원계좌 :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농협 301-0016-0537-91 / 국민은행 023501-04-147581

“승가와 재가 상호 존중 마음 느낀 기회”

- 경주 용암사 회주 용암 스님 -



회주 용암 스님

테라와다 불교에 대한 관심과 국제불교지도자협회의 미얀마에 대한 교류에 동참하고자 이번 행사에 참가한 경주 용암사 회주 용암 스님은 “미얀마는 범죄와 욕심이 없는 부처님의 법음이 가장 잘 구현되는 나라로서 불교의 역할을 승가로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며 “이번 행사에서 미얀마 불심에 감동받았으며 승가와 불자들의 상호 존중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용암 스님은 “이번 테라와다 불교 수행을 계기로 승가로서의 이상을 버리고 한국불교의 변화와 신도교육, 봉사지원 활동에 대해 적극 동참 하도록 하겠다”며 “어려운 미얀마 불자들에게 대한 다각적 지원으로 미얀마 불교를 수호하는데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미얀마 중정 닥터 우꾸마라 친견



까바야 지역 불자들의 정성어린 탁발공양



테라와다 상좌부 불교 단기출가수행